

보도자료

(농림부)

○ 제공일 : 2007. 1. 29
○ 제공자 : 농업협상과
○ 과 장 : 김종철
○ 사무관 : 김경미
○ 전 화 : 500-1738

이 자료는 2007년 1월 30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 본격 재개 합의

- 농림부는 이번 스위스 다보스 포럼 계기 1.27(토) 개최된 소규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.
-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은 농산물관세 인하, 농업보조금 감축, 공산품관세 감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협상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'06년 7월 잠정 중단되었으며, '06년 11월 일단 정상화되었으나 그간에는 실무차원의 기술적 논의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.
- 이번 각료회의에 참가한 25개 주요국 각료들은 DD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무역체제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, 다자적인 협상을 즉시 재개할 것을 실무협상가들에게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.
-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회의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2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, 미국, EU 통상장관, WTO 사무총장 면담, 농산물수입국그룹(G10, G33) 각료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.

□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일단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지만,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연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아직까지는 미국, EU, 브라질 및 인도 등 주요국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.

※ 미국은 농업분야 국내보조금을 226억불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EU와 G20등은 120~150억불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, EU는 농산물 관세를 51~54%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60%까지 요구하였고, 최근 미국과 EU는 개도국 특별품목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비난

□ 협상 본격 재개에 대응하여 정부는 G10, G33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상한, 민감품목, 특별품목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특히, 2006년 7월 협상 잠정중단 이후 미국, EU 등 주요국간에 내밀하게 진행된 양자간 비공식 논의 내용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.

그간의 DDA 협상 경과

- '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 출범

※ 당초 협상일정 : ① 세부원칙(Modality) 수립('03.3) ② 이행계획서 제출 ('03.9, Cancun 각료회의) ③ 협상완료('04말)

- '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, '04.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, '04.8.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

- '05.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며, 10월이후 미국, EU, G10, G20, ACP 등 주요 국가 그룹 및 주요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가 본격화

- '05.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,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

- '06. 7. 24일 국내보조,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 선언

- '06. 11. 16일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나, 다자적 차원이 아니고 양자적, 비공식적 논의가 이루어져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 되어 옴

< 참고 2 >

WTO/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내용

		E U		미 국	G20	G10	ACP
		10.13 제안	10.28 제안				
시장접근	구간경계	(선진국) 30-60-90 (개도국) 40-80-120	(선진국) 30-60-90 (개도국) 30-80-130	20-40-60	(선진국) 20-50-75 (개도국) 30-80-130	(선진국) 20-50-70 (개도국) 30-70-100	(선진국) 20-50-80 (개도국) 50-100-150
	관세감축률	(선진국) 20-30-40-50 (개도국) 13.3-20-26.6-33.3	(선진국) 35-45-50-60 *최하위(20~45%) (개도국) 25-30-35-40 *최하위(10~40%)	60-70-80-90	(선진국) 45-55-65-75 (개도국) 25-30-35-40	(예시1) 27-31-37-45 (예시2) 32±7-36±8-42±9 -50±10	(선진국) 23-30-35-42 (개도국) 15-20-25-30
	관세상한	(선진국)100%	(선진국)100% (개도국)150%	(선진국)75% (개도국) X%	(선진국)100% (개도국)150%	반대	반대
	민감품목	8%	8%(축소가능) 관세감축은 1/3 ~ 2/3 수준	1%	(선진국) 1% (개도국)1.5%	일정 비율 (10~15%)	-
	특별품목	제한적 인정	제한적 인정	한시적 인정	특별품목 지지	-	관세감축 면제 TRQ 증량 면제
	지리적 표시	-	모든 농산물 대상 지리적 표시 보호	-	-	-	-
국내보조	AMS	EU·일본 70%감축 미국 60% 기타 -	EU·일본 70%감축 미국 60% 기타 50%	EU·일본 83%감축 미국 60% 기타 37%	EU·일본 80%감축 미국 70% 기타 60%	EU 70%감축 일본·미국 60% 기타 40%	
	무역왜곡 보조총액	-	1구간 70%감축 2구간 60% 3구간 50%	EU 75%감축 미·일 53% 기타 31%	EU 80%감축 미·일 75% 기타 70%	EU 75%감축 일본·미국 65% 기타 45%	
	denitrinis	최소 65% 감축	선진국 80% 감축	50% 감축	AMS없는 개도국 감축면제	-	
	Blue Box	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	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	농업총생산액의 2.5%(상한)	Blue Box 제한	신규 블루박스 추가논의필요	
	Green Box	현행 규정 유지	현행 규정 유지	현행 규정 유지	개도국 관련규정 완화	현행 규정 유지	

< 참고 3 >

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

구분	대상 국가	기본입장	비 고
G6	미국, EC, 호주, 브라질, 인도, 일본		농업협상주요국 그룹
G10	한국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대만, 이스라엘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모리셔스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· 관세상한 설정 반대 ·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	수입국 그룹
케언즈 그룹	캐나다,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호주, 뉴질랜드, 콜롬비아, 말레이시아, 남아공, 볼리비아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	-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	수출국 그룹
G20	아르헨티나, 브라질, 볼리비아, 중국, 칠레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인도, 멕시코, 파라과이, 필리핀, 남아공, 태국, 쿠바, 파키스탄, 베네수엘라, 이집트, 나이지리아, 인도네시아 등	- 개도국 입장 대변 ·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, 수출보조 철폐 · 개도국 우대 강화	강경 개도국그룹
G33	한국, 중국, 도미니카, 온두라스, 인도, 인도네시아, 자메이카, 케냐, 마다가스칼, 모리셔스, 몽골, 모잠비크, 나이지리아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페루, 필리핀, 세네갈, 스리랑카, 터키, 우간다, 베네수엘라 등	- 개도국 입장 반영 ·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(SSM)에 중점	특별품목 그룹
G90	ACP, LDC,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, 남아공, 이집트 등	-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	
ACP 그룹	아프리카, 카리브해, 태평양지역 77개 국가	-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	